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 도입

카드사, 결제와 송금·인출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계산을 하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가 도입된다. 또 카드사가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지난 7월 금융위 업무부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점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상에서 개인별 결제금액을 요청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카드결제로 더치페이를 하면 송금방식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

후 이용 추이 등을 보면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된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은 가능하지만 결제 가맹점은 제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결제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가맹점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의 장기 체류자의 카드 발급·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활성화 한다.

현재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어 대금 수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허용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허용된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을 여신심사에 활용해 신용대출 취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 비용절감과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고지수단의 하나로 허용된다.

또 휴면카드가 거래 정지 후 자동해지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카드사의 모집 비용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 상품을 설명·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와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안에 마치기로 했다.

또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추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뉴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업체험 행사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초청해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기여를 위한 직업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직업체험은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등 3곳의 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도공 전북본부의 토지업무, 재무회계 업무, 토목업무 부

서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만나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공 신입사원들이 주축이 된 입사방법 설명회에서는 많은 질문이 쇄도하면서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도공 전북본부는 "이번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



NH농협은행, 추석연휴 이동점포 운영

NH농협은행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향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와 하남드림휴게소(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이동점포인 NH Wings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휴게소 및 축제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신권 교환은 물론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추석 연휴동안 휴게소와 함께 입실N치즈축제, 공주백제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9곳의 지역 행사장을 찾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산수유꽃축제 등 매년 10회 이상 축제 등의 현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현장을 누돌다니며 신권 교환은 물론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금융

/뉴스

전주매일 www.jjmaeil.com

지난 설날 선물 '햄·참치세트' 최고 인기 상품

농림축산식품부, 명절 선물 주요 소비 트렌드 공개

올해 설날 연휴에 선물세트 구매가 감소하고 수입산 농산물과 햄·참치세트가 인기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추석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와 POS 구매데이터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명절 선물에 대한 주요 소비 트렌드를 공개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설날에는 선물세트 구매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수입산 농산물 및 실속세트, 햄·참치 세트 등이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에는 굴비세트,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이 인기 있었으나 올해 설에는 수입산 굴비세트, 수입산 갈비 및 실속세트 등 수입산 관련 키워드가 등장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로 구분돼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가액(5만원) 규정이 이같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명절선물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정성, 가격, 건강, 추천, 디자인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격'은 매년 상위 관심사항으로 나타났다.

명절선물 하면 생각나는 우리 농산물 품목은 과일, 한우 순으로 많이 언급됐으며, 특히 설에는 곱감, 추석에는 한과와 버섯의 언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구매처(마트, 백화점, 직거래)별로 올해 추석선물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거래 상품이 평균 중량 또는 개수가 더 많고, 각 가격대별로 6차산업, 식품

명인 상품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명절 소비트렌드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선보였다.

▲언제 = 선물 구매시점을 알아본 결과, 1달 전부터 선물준비와 구매가 시작돼 명절 1주일 전에 선물관련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서 = 선물 구매 장소로는 역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언급이 증가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얼마에 = 소셜데이터에서는 주로 3만원 또는 5만원 미만의 선물 관련 가격의 언급이 많았다. 실제 구매데이터 상으로는 올해 설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대부분의 가격대에서 구매가 감소했고, 특히 5만~10만원 구간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엇을 = 명절선물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먹거리 관련이며 특히 과일,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많이 언급되고 최근에는 베이커리류(쿠키, 케익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에게 = 선물 대상은 지인, 부모님, 직장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가 명절마다 선물하는 주요 대상과 동일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추석, 명절, 선물을 키워드로 블로그(50만건), 트위터(261만건), 뉴스(5600건)에서의 언급수와 검색트렌드로 최근 3년간 명절선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분석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경기지역 12만4462건의 농협 하나로마트의 POS 구매데이터를 통해 농산물 선물에 대한 구매트렌드를 분석했다.

/뉴스